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마감일: 6월8일14시00분

| 노영우 컨설턴트 & 취업 플랫폼 '룩센트'

### 우리은행 하계 체험형 인턴십(일반 직무)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국내 은행 산업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일반은행은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시중은행,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삼는 지방은행,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합니다. 특수은행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처럼 개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국 은행권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핵심 자회사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네 곳의 지주와 농협금융을 더한 5대 금융그룹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 아래에서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세 곳이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는 '5 더하기 3'의 구도를 굳혔습니다.

자산 규모로 본 서열은 우리금융의 현재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2026년 1분기 말 우리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612조 6,000억 원입니다.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자산 5위 자리에 머물러 왔고, 이 점이 우리금융 경영진의 모든 전략적 판단을 관통하는 출발선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그룹 자산이 늘어나면서 농협금융과의 격차를 좁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 1-2. 기준금리 사이클과 2026년 통화정책 환경

은행 수익성의 가장 큰 외부 변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통화정책 기조를 인상에서 인하로 바꾼 뒤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췄고, 2025년 5월까지 누적 1.0%포인트를 내려 기준금리를 연 2.5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5월 28일 금통위에 이르기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는 장기 동결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전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했고, 취임 직후 중동(이란)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을 가로막는 조합을 경계한다며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이 환경은 은행에 양면적입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압박이 생깁니다. 동시에 동결 장기화는 마진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 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1조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0조 원 늘었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로 전월보다 6.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고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을 잡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1-3. 규제 환경: 스트레스 DSR과 가계부채 관리

2026년 은행 산업을 짓누르는 가장 강력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업권의 전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는 연소득 1억 원 차주의 수도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5억 8,7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으로 약 14.7% 줄였습니다. 한도 산정 자체를 옥죄는 규제이므로,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을 늘려 이자이익을 키우는 전통적 성장 공식은 2026년 들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책무구조도(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은행은 외형 확대보다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문이 좁아진 만큼 은행들은 기업금융, 비이자이익, 글로벌, 디지털·AI로 성장 무게를 옮기는 전략을 일제히 채택했습니다.

### 1-4. 최근 3~5년 핵심 트렌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쟁

은행은 더 이상 점포 중심의 산업이 아닙니다. 토스의 월간활성사용자는 2,50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100분을 웃돌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월간활성이용자 1,890만 명, 주간활성이용자 1,360만 명으로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고객 접점을 장악하면서, 시중은행은 슈퍼앱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오프라인 채널 축소는 숫자로 뚜렷합니다. 5대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25년 말 기준 3,748개로 2024년 말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676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은행도 최근 1년 동안 영업점 28개의 문을 닫았습니다. 5대 은행은 2025년 초 희망퇴직으로 총 2,315명을 줄였고 이는 전년 대비 23.9% 늘어난 규모입니다. 채널과 인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디지털과 AI 투자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산업 재편 국면입니다.

### 1-5. 생성형 AI 도입 가속과 산업 표준의 변화

2026년 은행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생성형 AI입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는 AI 회사다"라는 선언처럼, KB·신한·하나·NH농협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일제히 AI 전환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은행들은 AI 콜센터(AICC), 직원 업무용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로보어드바이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여신심사 자동화 같은 영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프론트·미들·백 오피스 전반에서 AI가 초개인화 상품 추천, 실시간 사기 탐지, 언더라이팅 간소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은 채용 시장의 인재 요건도 바꿔 놓았습니다. AI를 활용해 자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AI가 만든 결과의 한계를 알아채 보완할 줄 아는 역량이 이제 신입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기본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 1-6. 시장 규모와 수익성 지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4.1조 원으로 전년 22.2조 원 대비

8.2%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이익은 60.4조 원으로 1.8%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7.6조 원으로 26.9% 증가했는데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6.2조 원 늘어난 점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순이자마진은 2024년 1.57%에서 2025년 1.51%로 6bp 좁혀졌습니다. 외형은 커졌지만 마진의 질은 떨어지는 구조이며, 산업의 경쟁 무대가 '얼마나 많이 빌려주는가'에서 '얼마나 남기는 영업을 하는가'로 옮겨갔음을 보여 줍니다.

### 1-7. 가치사슬과 핵심 수익 지점

은행의 가치사슬은 조달, 운용, 채널, 리스크 관리, 수수료 영업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신과 시장성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신과 유가증권·외환으로 운용하며, 영업점과 디지털 채널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심사와 사후관리로 위험을 통제하며, 자산관리(WM)·투자은행(IB)·외환·신탁에서 수수료를 거둡니다. 한국 은행권의 구조적 약점은 이자이익 의존도가 85~9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도 순영업수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이자이익 확대가 그룹 전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1-8.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2024년 리딩뱅크는 신한은행이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KB국민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신한은행이 1조 1,571억 원의 순이익으로 다시 리딩뱅크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가파르게 컸습니다. 2025년 카카오뱅크 4,803억 원, 토스뱅크 968억 원, 케이뱅크 1,28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케이뱅크는 2025년 3월 코스피 상장으로 자본 확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빅테크가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과 협력을 오가는 '협쟁'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 1-9. 2026년 산업 전망과 건전성 경고

2026년 산업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자산 건전성입니다. 5대 금융지주는 2026년 1분기에 합산 순이익 6조 1,9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곳곳에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상승과 커버리지비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2분기 정리 압박과 총당금 부담이 예고되어 있어, 화려한 이익 뒤에 가려진 건전성 부담이 하반기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비이자이익과 비은행이 그룹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굳어진 만큼, 증권·보험 계열사를 얼마나 빠르게 키우느냐가 그룹 간 격차를 벌리는 결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 1-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의 성장 무계가 가계대출과 이자이익에서 기업금융, 비이자이익, 디지털, AI로 옮겨가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은행은 이 흐름을 '기업금융 명가 재건'과 'AX 추진'이라는 두 전략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지원자는 거시 변수인 기준금리 2.50%,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 3%, NIM 1.51%를 우리은행의 미시 전략인 기업대출 비중 확대와 AI 에이전트 175개 도입 계획과 이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5대 시중은행 비즈니스 모델 비교

5대 시중은행은 모두 종합금융그룹의 핵심 자회사이지만 강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KB국민은행은 자산 1위의 리테일 절대강자로, KB증권·KB라이프·KB손해보험까지 갖춘 가장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과 자산관리에 강점이 있고, 신한투자증권의 실적 회복이 그룹 성장을 견인합니다. 하나은행은 외환과 트레이딩이 강하며, 비이자이익에서 매매평가익과 수수료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농·축협 네트워크 기반의 광역 점포망과 정책금융이 강점이지만 비은행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랜 기간 '기업금융 명가'로 불려 왔으며 대기업 주채권은행을 가장 많이 맡아 왔습니다.

#### 2-2. 2026년 1분기 실적으로 본 경쟁 서열

2026년 1분기 5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은 6조 1,9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5조 6,440억 원 대비 9.8% 늘었고, 1분기 기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11.5% 늘어난 1조 8,924억 원으로 리딩금융을 지켰고, 신한금융이 9.0% 늘어난 1조 6,22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금융은 7.3% 늘어난 1조 2,100억 원, 농협금융은 21.7% 늘어난 8,688억 원을 거뒀습니다. 우리금융은 6,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 5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뒷걸음질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의 순이익 격차는 세 배를 넘습니다.

#### 2-3. 비은행과 비이자이익에서 갈린 승부

2026년 1분기 실적의 일등 공신은 은행 이자이익이 아니라 증권을 앞세운 비이자이익이었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4조 7,808억 원으로 24.2% 늘었고, 증권 계열사 순이익은 1조 2,292억 원으로 114.9% 급증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 3,478억 원, NH투자증권 4,757억 원, 신한투자증권 2,884억 원, 하나증권 1,033억 원을 거둔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14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룹 내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를 보면 KB금융 43%, 신한금융 34.5%, 우리금융 23.5%, 하나금융 18% 순서로, 우리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종합금융그룹 완성 효과가 반영되며 하나금융을 앞섰지만 KB·신한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 2-4. 우리은행의 포지셔닝: 기업금융 강점과 비은행 약점

우리은행은 4대 은행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율에서 앞서 왔고, 2023년 9월 '기업금융 명가 재건 전략 발표회'에서 2027년 기업대출 잔액 237.9조 원, 기업과 가계 자산 비중 60대 40, 기업대출 점유율 1위라는 구체적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약점도 분명합니다. 그룹 이익의 대부분을 은행이 만들어 낼 정도로 비은행 비중이 낮았고, 오랜 기간 증권과 보험이 없어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종합금융그룹 완성이 늦어졌습니다. 우리은행의 정체성은 '5대 그룹 중 5위이지만 종합금융그룹 완성과 기업금융 재건으로 격차를 좁히는 도전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2-5. 최근 핵심 이슈 하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보험 진출

우리금융은 2024년 6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양해각서를 맺고 같은 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1조 5,493억 원으로 동양생명 1조 2,840억 원, ABL생명 2,653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내부통제 개선을 조건으로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고, 같은 해 7월 1일 잔금 납부로 편입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금융은 생명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동양생명 자산은 약 36조 원, ABL생명 자산은 약 20조 원으로 합산하면 약 56조 원 규모입니다.

### 2-6.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와 우리라이프 통합 일정

2026년의 쟁점은 보험사 보유가 아니라 보험사 통합입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보유 중이며, 남은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해 100%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 주입니다.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교환을 완료하고, 8월 말 신주 상장과 함께 동양생명 상장폐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합병을 추진해 자산 약 56조 원 규모의 통합 생명보험사 '우리라이프(가칭)'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업계는 통합 법인의 공식 출범 시점을 2027년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2026년 2월 동양생명 본사를 찾아 1년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동양생명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약 250억 원에 그쳤고 투자손익이 크게 줄어, 인수 시너지를 보여 주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2-7. 최근 핵심 이슈 둘: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1조 원 유상증자

2024년 8월 1일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으로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출범 당시 자기자본 1조 1,000억 원의 업계 18위권 중형사로 시작했고, 2025년 3월 금융위가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의결하며 종합증권사 기반을 갖췄습니다. 2026년 2월 우리금융이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2026년 4월 24일 이사회에서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증자가 끝나면 자본총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늘어 자본 규모 기준 업계 11위 수준에 올라섭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최소 기준인 자기자본 3조 원까지는 약 8,000억 원,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4조 원까지는 약 1조 8,0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출범 5년 차 ROE 10%와 2030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약, 10년 내 자기자본 5조 원과 초대형 IB 인가 획득, 2~3년 내 2차 인수합병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2-8. 우리투자증권의 초기 성장세

우리투자증권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77% 늘었습니다. 운영업수익은 701억 원으로 75.0% 증가했고, 비이자이익은 414억 원으로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173.3% 급증했습니다. IB 관련 수수료가 171억 원으로 249% 늘었고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243억 원으로 151% 증가하면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1년 전 6대 4에서 4대 6으로 뒤집혔습니다. 절대 금액은 KB증권의 4.0%, 신한투자증권의 4.9%, 하나증권의 13.6% 수준으로 아직 작지만, IB와 운용 부문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 2-9. 최근 핵심 이슈 셋: 임종룡 회장 연임과 내부통제 과제

임종룡 회장은 2026년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에 성공해 2029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 갑니다. 정진완 행장은 2025년 1월 취임한 1968년생 최연소 행장으로, 한일은행 출신의 중소기업 영업 전문가입니다. 임 회장 1기에 우리금융은 당기순이익을 2023년 2조 5,100억 원에서 2024년 3조 1,200억 원으로, 비이자이익을 1조 1,000억 원에서 1조 9,300억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730억 원과 전현직 임직원의 단기성과 목적 부당대출 1,604억 원 등 총 2,334억 원이 드러났고,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권 부당대출의 약 60%가 우리은행에서 나왔다는 비판을 받으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상명하복 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현 체제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의사결정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2-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우리은행의 경쟁 위치는 '안정된 1위'가 아니라 '공격적 추격자'입니다. 종합금융그룹 완성과 기업금융 재건으로 격차를 좁히려는 회사는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동시에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사건을 겪은 직후이므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규정을 지키며 정확하게 일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원자는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이 강하다"라는 평범한 진술을 넘어, 2027년 기업과 가계 비중 60대 40 목표와 보통주자본비율 유지 사이에서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성을 따지는 영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이라는 해석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사업 구조와 고객별 자산 구성

우리은행의 사업 구조는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이 거의 비등하게 받치고 글로벌과 자금시장이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차주별 원화대출금 비중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거의 절반씩 나뉘며, 기업여신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가계여신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구성합니다. 기업대출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크고 부동산업이 그 뒤를 이으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따라옵니다. 부동산업 익스포저가 적지 않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우리은행 총여신은 2001년 50조 원에서 2024년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333조 원으로 6.7배 성장했고, 총대출 잔액은 334조 원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 3-2. 2026년 1분기 실적의 명암

우리금융의 2026년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6,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6,167억 원 대비 2.1% 줄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순이익이 5,312억 원으로 16.1% 감소하며 그룹 실적을 끌어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회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증권·환율 관련 이익이 줄고 해외법인 추가 총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구조 안쪽을 들여다보면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이자이익은 2조 3,032억 원으로 2.3% 늘었고 은행 순이자마진은 1.51%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켰습니다. 비이자이익은 4,546억 원으로 26.6% 증가했고, 특히 수수료이익은 5,768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은행 자회사 합산 순이익은 1,22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6% 급증하며 포트폴리오 완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명예퇴직 비용 증가와 법인세율 인상, 해외법인 총당금을 감안한 수정 순이익을 약 8,500억 원으로 추정하며 핵심 이익 창출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3-3. 전략 방향 하나: 기업금융 명가 재건과 생산적 금융

임종룡 회장의 2026년 신년 메시지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으로 압축됩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기업금융 명가인 우리금융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했습니다. 정진완 행장이 부장 시절부터 공들여 온 '원비즈플라자'는 2022년 9월 선보인 금융권 최초의 공급망관리 플랫폼으로, 중견·중소기업이 별도 비용 없이 가입해 구매·정산·자금조달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돕는 차별화 자산입니다. 우리은행은 반도체·AI·제조로봇 같은 정부 전략산업 정책과 연계해 수출입 기업 금융지원을 넓히고 있고, 2025년 조직개편에서 외환사업본부를 기업그룹에 배치해 기업 원스톱 금융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 3-4. 전략 방향 둘: 전사적 AX와 'AI 회사' 선언

임종룡 회장은 2026년 1월 16일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AX는 금융의 판도를 좌우하는 기준인 만큼 '우리는 AI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AI 중심 경영체제를 그룹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은행에서 비은행까지 AI 전환을 확대하는 그룹 AX 마스터플랜을 가동했고, 연임 확정 직후 임 회장의 첫 공개 행보가 우주 AI 스타트업 방문이었다는 점은 이 전략의 우선순위를 보여 줍니다. 우리금융캐피탈도 1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24시간 AI 심사역 배치와 AI-OCR 기반 문서 자동 인식, 영업과 내부통제 자동화를 연내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5. 차별화 자산 하나: 금융권 최대 규모 AI 에이전트 बैं킹

우리은행은 약 1,100억 원 규모의 AI 에이전트 बैं킹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AI 혁신에 나섰습니다. 현업 담당자 제안을 반영해 575개의 에이전트 요건을 도출한 뒤, 실행 용이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심층 평가해 기업여신·자산관리·내부통제·고객상담·업무자동화의 5대 과제 영역 29개 업무에 적용할 175개 AI 에이전트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2026년 12월 1차로 97개를 공개하고 2027년 초까지 78개를 순차 출시해 은행 내 금융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삼성SDS가 이 AI 에이전트 banking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금융권 AX 레퍼런스를 넓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사업이 인력 감축이 아니라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3-6. 차별화 자산 둘: 우리GPT와 생성형 AI 검증 경험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내부 데이터 정비 사업을 벌여 AI 활용 기반을 다졌고, 'AI 뱅커'와 '우리GPT' 같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우리GPT는 직원 업무용 생성형 AI로, 전자공시시스템과 외부 기업데이터에 더해 내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기업 리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운영GPT',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청약 상담 서비스 'AI청약상담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한계를 보완해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이 우리은행 AI 전략의 차별점입니다.

### 3-7. 차별화 자산 셋: 글로벌 네트워크와 디지털 채널

우리은행은 여러 국가에 해외법인을 운영하며 2030년까지 글로벌 손익 비중 25%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동남아 거점에 더해 폴란드 바르샤바 지점으로 K-방산·전기차·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거점 준비로 반도체·빅테크 기업금융 수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측면에서는 2024년 11월 'NEW 우리WON뱅크'를 다시 구축했고, 2025년 12월 조직개편에서 디지털전략그룹을 'AX혁신그룹'으로 격상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함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 3-8. 차별화 자산 넷: 자본비율 개선과 주주환원

우리금융은 2026년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6%까지 끌어올려 역대 최고이자 중장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효과에서 나왔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재평가 효과를 빼면 신한금융 등 경쟁사 수준에 못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은행지주 가운데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며 2025년 누적 배당금을 주당 1,3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높였고, 2026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보다 33.3% 늘려 2,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을 회사는 주주환원과 포트폴리오 완성의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 3-9. 리스크 요인 정밀 진단

우리은행의 리스크는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부통제와 평판 위험입니다. 2024년 부당대출 2,334억 원 적발과 경영실태평가 3등급은 회사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수익성 위험입니다. 2026년 1분기 우리은행 순이익이 KB·신한 은행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NIM이 경쟁사 대비 낮은 편이라, 은행 본업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비은행 자본 부담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초대형 IB 요건 충족까지 단계적

증자가 필요하고, ABL생명의 자본 건전성 지표가 규제 권고치를 밑도는 점도 보완 과제입니다. 넷째,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업 익스포저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가계대출 성장을 옥죄는 가운데 기업대출의 부동산업 비중이 적지 않아 부동산 경기 둔화 시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3-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우리은행을 이해하려면 '체질 전환의 청사진'과 '체질 전환의 과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사진은 기업금융 비중 확대, AI 에이전트 175개 도입, 종합금융그룹 완성, 글로벌 손익 25%입니다. 과제는 내부통제 회복, 은행 본업 수익성 개선, 비은행 자본 확충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회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본비율 개선과 수익성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회사는, 위험가중자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익을 내는 영업 감각과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환영합니다.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공식 인재상과 핵심가치의 최신성 확인

우리은행 공식 채용 페이지가 밝히는 인재상은 "우리의 핵심가치를 이행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며, 공식 핵심가치는 '고객행복, 미래도전, 정직신뢰, 인재제일' 네 가지입니다. 이 핵심가치는 2026년 현재에도 우리은행 공식 페이지와 2026년 상반기 채용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과거의 것이 아닌 현행 인재상임을 교차검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품성이 바르며 전문성과 함께 원칙과 상식에 바탕을 둔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고, 인재개발의 기본 방향을 "기본기가 튼튼한 1등 인재 육성"으로 규정합니다. 형식적 핵심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임종룡 체제의 실무 강조점인 '올바른 품성, 창의와 혁신, AI 활용'이 그 위에 얹혀 평가의 실제 무게를 결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 채용 보도자료에서 인사 담당자는 "올바른 품성을 가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 4-2. 조직 문화의 뿌리와 임종룡 체제의 쇠신

우리은행은 2001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했고, 양 출신이 번갈아 행장을 맡는 관행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한일은행 출신 정진완 행장은 2025년 1월 취임사에서 금융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과 기업문화 재정비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사건 이후 감독당국이 상명하복 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만큼, 현 체제는 의사결정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그룹 전반에 'AI 중심 경영체제'를 뿌리내리겠다고 과감한 AX로 완전한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4-3. 은행 일반직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하나: 정확성과 윤리

은행원의 본질은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1원의 오기재, 한 번의 본인확인 누락, 한 건의 부적정 대출이 곧 은행의 자본 손실과 평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부당대출 사건에서 드러났듯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존재했고, 이를 막는 인재의 특성은 규정 준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 위계 압력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는 윤리적 용기, 실수와 부정을 줄이는 꼼꼼함과 정확성입니다. 우리은행이 '관행·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프로세스 개선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흐름은, 채용 평가에서 이 특성의 비중이 커졌음을 보여 줍니다.

### 4-4. 선호 인재 특성 둘: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 마인드

내부통제 사건을 겪은 회사일수록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은행은 비효율적 관행을 찾아 바꾸는 과제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AX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 낭비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 더 나은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조직 분위기입니다. 회사가 575개 에이전트 요건을 현업 제안에서 끌어낸 사실은, 현장의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이는 문화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 4-5. 선호 인재 특성 셋: 영업력과 고객 응대

은행원의 성과는 결국 수신, 여신, 수수료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영업점 행원은 창구 응대에서 시작해 상품 추천, 교차판매,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을 매일 수행합니다. 우리금융이 보험과 증권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이 되면서, 은행 상품과 그룹사 상품을 연결해 시너지를 끌어내는 영업력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다만 외형만 키우는 영업이 아니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을 따지는 '남는 영업'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고객의 진짜 필요를 읽고 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 4-6. 선호 인재 특성 넷: 다부서 협업과 리스크 감수성

영업점 행원은 본부의 심사, 리스크, 여신정책, 디지털, 전산 부서와 끊임없이 협력합니다. 대출 한 건이 실행되려면 차주 신용 평가, 담보 평가, 약정과 실행,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한 부서라도 어긋나면 부실 대출이나 사고로 번집니다. 기여도가 낮은 동료라도 결과를 책임지는 협업 리더십, 위험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감각이 핵심 역량입니다.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가 신뢰와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협업 과정에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성과만큼 중요합니다.

### 4-7. 선호 인재 특성 다섯: AI·디지털 활용 역량

임종룡 회장의 'AI 회사' 선언과 약 1,100억 원 규모 AI 에이전트 사업, AX혁신그룹 신설은 AI를 도구로 활용해 자기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역량이 신입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회사가 원하는 것은 AI를 피상적으로 써 본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의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

오류와 한계를 알아채고 스스로 검증해 보완하는 메타인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해 검증을 마친 우리은행의 경험은, 이런 검증·보완 역량을 갖춘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 4-8. 선호 인재 특성 여섯: 학습 속도와 금융지식 기반

기준금리, NIM, DSR, 보통주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성, 보험계약마진, 신지급여력비율처럼 해마다 새로운 약어가 쏟아지는 산업입니다. 정진완 행장이 신입행원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본기이고, 우리은행은 자격증과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를 우대해 학습 능력과 전문성 기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합니다.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빠르게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 속도가, 변화가 빠른 이 산업에서 장기 성장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 4-9. 조직 문화가 일하는 방식에 남기는 흔적

우리은행 조직 문화의 현재 키워드는 '신뢰 회복'과 '혁신'입니다. 내부통제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회사는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보수적 태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AI 전환과 기업금융 재건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추진력을 함께 원합니다. 이 두 요구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은행 인재상의 어려운 지점이자 핵심입니다. 보수적 정확성과 진취적 혁신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회사는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 4-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올바른 품성, 전문성, 혁신, 협업'의 네 요건이 우리은행 인재상의 실제 평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현행 전략인 AI 전환과 프로세스 개선, 기업금융 재건, 종합금융그룹 시너지는 모두 이 네 요건과 이어집니다. 지원자는 형식적 핵심가치를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2026년 우리은행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가치인 '윤리적 정확성'과 'AI를 활용한 혁신'을 자기 강점과 연결해 이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5장: 직무 분석

### 5-1. 일반 직무의 본질과 체험형 인턴십의 위치

2026년 하계 체험형 인턴십은 약 4주 동안 영업점과 본부부서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명을 선발합니다. 정규 입행 후 신입행원은 통상 영업점 창구에서 시작해 PB나 기업금융을 거쳐 본부 부서로 성장하는 경로를 밟습니다. 일반 직무는 수신, 여신, 외환, 카드, 방카슈랑스, 신탁, 자산관리 기초까지 두루 다루는 멀티 플레이어로 자랍니다. 우리금융이 보험과 증권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이 된 만큼, 일반직은 은행 상품과 그룹사 상품을 연결하는 교차판매 통로라는 의미가 한층 커졌습니다.

### 5-2. 영업점 일반직의 하루 단위 업무

하루 단위로 보면 영업점 일반직의 일과는 개점 전 시재와 전산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창구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공과금 수납, 각종 증서 발급 같은 응대 업무를 처리하고, 예적금과 대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인원을 나눠 창구 공백을 메우고, 오후에는 마감 준비와 사후 관리, 교차판매 상담을 이어 갑니다. 1원이라도 오기재하면 시재 차이로 마감이 늦어지므로, 하루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작동합니다.

### 5-3. 한 달과 1년 단위 업무 사이클과 평가

한 달 단위로는 월말 실적 마감, 캠페인 상품 판매, 신규 고객 발굴이 더해집니다. 1년 단위로는 수신과 여신, 수수료, 고객만족도, 교차판매, 디지털 전환율 같은 여러 갈래의 성과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재건 전략을 발표하며 현장 중심 인사체계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명시했고, 이는 영업점 행원의 성과 보상이 그룹 평균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강조하는 만큼,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함께 갖추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평가의 이면에 있습니다.

### 5-4. 수신·여신·외환의 핵심 업무 흐름

수신 업무는 예적금 가입, 명의 확인, 자금세탁방지과 실명 확인, 카드와 बैं킹과 보안매체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여신 업무는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소상공인 대출의 사전 상담에서 출발해 서류 접수, 심사 의뢰, 약정, 실행, 사후관리로 흘러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한도 산출 로직과 우대금리 적용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외환 업무는 환전, 송금, 수입신용장,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나뉘며, 외환사업본부를 기업그룹에 배치한 조직 개편과 맞물려 기업 외환 수요 대응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 5-5.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 지도

영업점 일반직이 협력하는 내부 관계자는 지점장과 부지점장, 동료 행원, 본부 영업기획과 마케팅 부서, 여신 심사와 관리 부서, 리스크와 준법감시 부서, AX혁신그룹, 인사와 인재개발 부서, IT와 전산 부서로 폭넓습니다. 외부 관계자는 개인 고객, 기업과 소상공인 고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같은 감독당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과 외부 평가사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본부부서에 배치되면 AX 혁신그룹, 인재개발 부서, 전산 부서와 가까이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 5-6. 필요 역량: 기술과 지식

일반직에 필요한 기술·지식 역량은 예적금과 대출과 외환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금융 기본기, 회계와 재무제표 해석, 산업과 기업 분석, 자금세탁방지과 고객확인내부통제, 엑셀과 데이터 조회와 생성형 AI 프롬프트 설계 같은 디지털 도구 활용, 글로벌 직무를 맡을 경우의 외국어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약 1,100억 원 규모의 AI 에이전트 बैं킹을 도입하는 만큼, 신입 단계에서도 AI 도구를 업무에 녹여 쓰는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 5-7. 필요 역량: 소프트스킬과 태도

소프트스킬과 태도 역량은 정확성과 꼼꼼함, 위계 압력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는 윤리적 용기, 고객 응대 화법, 갈등 관리, 다부서 협업, 학습 속도, 자기주도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를 인정하고 복기하는 메타인지와 변화에 열려 있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는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업무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금융이라는 산업의 신뢰 기반을 지키려면, 기술 역량 못지않게 책임감과 정직함이라는 태도가 받쳐 주어야 합니다.

### 5-8. 성과 지표와 평가 관점

영업점 행원의 평가는 여러 갈래의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수신 잔액과 증가율, 여신 잔액과 연체율, 카드와 방카슈랑스와 신탁과 외환에서 나오는 비이자수익, 교차판매 실적, 고객만족도, 비대면 가입 비중으로 측정하는 디지털 전환율,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사고 건수라는 역방향 지표를 함께 봅니다. 2026년 1분기 우리은행 연체율이 0.38%로 오른 점과 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68%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건전성 관리의 비중이 평가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배치 부서 평가와 개인·팀 과제, 최종 평가를 종합해 우수 인턴을 가립니다.

### 5-9. 가상 업무 시나리오

체험형 인턴이 마주할 만한 업무를 세 가지 상황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영업점 배치입니다. 고령 고객이 만기 도래 예금을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옮기고 싶다면 방문하면, 행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따라 고위험 상품을 권하지 않고 위험 등급에 맞는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과거 홍콩 H지수 연계 상품 사태에서 은행권이 큰 배상을 치른 학습이 현장에 반영되는 장면입니다. 둘째 상황은 기업금융 본부입니다. 중소 제조업체가 원비즈플라자에 가입한 뒤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인턴은 발주서 진위 확인과 미정산 판매대금 흐름을 정리하고 심사 절차를 보조합니다. 셋째 상황은 AX혁신그룹입니다. 여신 심사 자동화 시범 사업에서 우리GPT가 만든 기업 리포트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일을 맡으면, 인턴은 전자공시와 외부 기업데이터를 대조해 잘못 생성된 사례를 찾아내고 프롬프트 보완안을 제안합니다. 이런 검증·보완 작업이 우리은행이 신입 인재에게 기대하는 AI 활용 역량의 실제 모습입니다.

### 5-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일반 직무는 수신·여신·외환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본 역량, 고객과 동료와 본부를 잇는 협업 역량, AI와 디지털로 업무를 효율화하는 미래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멀티 플레이어 트랙입니다. 체험형 인턴 기간에는 배치 부서의 업무 흐름 가운데 개선할 지점을 찾아 정리하는 경험이 회사의 '관행 개선'과 'AX 추진' 전략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회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직무의 일상 속에서 읽어 내는 시각이, 지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McKinsey & Company, Financial Services insights

—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financial-services/our-insights>

BCG, Financial Institutions overview — <https://www.bcg.com/industries/financial-institutions/overview>

Bain & Company, Financial Services

— <https://www.bain.com/industry-expertise/financial-services/>

삼정KPMG, AX와 금융산업 인사이트 — <https://kpmg.com/kr/ko/home/media/experts-column/2024/07/experts-column-11.html>

한국은행 메인(기준금리·가계신용·소비자심리) —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토스뱅크, 2026 기준금리 동결·일정 — <https://www.tossbank.com/articles/baserate2601>

Trading Economics, 한국 이자율과 신현송 총재 취임

—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interest-rate>

KB, 스트레스 DSR 3단계 한도 영향

—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06/stressdsr.html>

이지경제, 2025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24.1조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72>

파이낸셜뉴스, 5대 금융 1분기 6.2조 역대 최대

— <https://www.fnnews.com/news/202604241801498990>

뉴스핌, 4대 금융 1분기 비교와 비은행 기여도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24001268>

뉴스핌, 5대 금융 1분기 건전성 경고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28001121>

아주경제, 5대 금융 비은행 희비 — <https://www.ajunews.com/view/20260426131345767>

뉴스워치, 5대 금융 1분기 농협 웃고 우리 울었다

—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9442>

주간한국, 5대 금융 1분기 6.2조 신기록

—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1495>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

아시아투데이, 상중하위 벌어진 실적 격차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6010008206>

인더뉴스, 2026 1분기 우리금융 순익과 CET1 13.6%  
—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6075>

1코노미뉴스, 우리금융 1Q 계열사별 실적  
—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68>

스마트비즈, 우리금융 1Q 역성장과 건전성  
— <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78>

Investing.com, 우리금융 1분기 SEC 공시  
— <https://kr.investing.com/news/sec-filings/article-93CH-1948349>

디지털데일리, 동양생명 상장폐지·보험 통합  
— <https://m.ddaily.co.kr/page/view/2026050711132970054>

스트레이트뉴스, 우리금융 보험 동양·ABL 통합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6>

중앙이코노미뉴스, 임종룡 1년 내 통합·우리라이프  
— <https://www.joong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912>

한국M&A경제, 우리라이프 자산 56조 윤곽  
— <https://www.km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0>

녹색경제신문, 우리투자증권 1조 유상증자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9832>

insight, 우투증권 증자 후 ROE 과제 — <https://www.insight.co.kr/news/555656>

중소기업신문,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초대형IB 목표  
—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04>

더벨, 임종룡 AX 승부수와 1100억 AI 에이전트  
—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newskey=202604101514420960103776>

한국금융신문, 175개 AI 에이전트 선정 내역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3152148572580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3152148572580dd55077bc2_18)

이지경제, AI 에이전트 175개와 영업점·인력 동향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81>

테크M, 삼성SDS 우리은행 AI 에이전트 बैं킹 수주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우리은행\_일반(하계 체험형)

---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90>

아시아에이, 임종룡 2기와 AI 회사 선언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397>

더구루, 임종룡 회장 연임 확정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9743>

우리은행 공식, 인재상과 핵심가치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HRR0007>

우리은행 공식, 비전·가치체계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BK10004>

우리금융그룹 IR, 실적발표 자료 — <https://www.woorifg.com/kor/investor/ir/earnings-announcement/list.do>